

# 영원의 시각을 갖자

성경말씀: 시73:1-28

## 도입

아삽, 헤만, 여두둔(에단) 다윗 왕 당시에 성소에서 음악과 예배를 담당한 지도자들 자기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모아 예배의 전통을 지켜나갔다(대상25:9-31).

아삽은 73편을 비롯해서 (50편, 73-83편) 12편의 시편을 지은 저자이다.

아삽은 게르숨 족속에 속한 레위 사람(대상16:5), 영적인 사람, 찬양과 대언의 선물을 가진 사람 아삽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책임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모두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 받는 것”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런 악한 일이 있을까?”, “과연 그분은 전능하시고 선하신가?” 아삽이 겪은 다섯 가지 단계를 살펴보며 “영원의 시각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예배의 유익을 살핀다.

### 1. 확신하는 사람: 자기가 아는 것에 서 있는 사람(1절)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또 자기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사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신28). 마음이 깨끗한 자는 죄가 없음을 뜻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뜻한다.

아삽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에게 문제가 되었다. ★★★

“왜 악인들은 큰 문제가 없고 의인들은 어려움을 겪는가?”

삶의 미스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선 확실한 사실에 의지해야 한다. ★★★

### 2. 의심하는 사람: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미끄러짐(2-3절)

2절의 ‘그러나’는 상황의 반전, 자기의 상황을 악인들의 상황과 비교하면 할수록 확신의 기초에서 미끄러지고 있다. 거의 믿음을 잃을 단계에 있었다. 우리는 미끄러질만한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대중매체, 진화론 등 세상의 유행과 철학과 풍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로 사람을 이끈다.

3절: 그는 결국 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한다(시37:1-2).

### 3. 갈등하는 사람: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으로 인해 갈등함(4-14)

4절: 악인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다. 죽었다가 다시 왔다는 사람들의 책들이 유행함(죽은 게 아님).

5절: 악인은 보통 사람들의 문제들이 없다. 잘 먹고 잘 산다. 돈이 많아서 오래 살고 아프지도 않는다.

6절: 그들은 교만하고 교만을 금 사슬처럼 두르고 다닌다. 세상의 지위, 명예, 학식이 많은 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대단히 어렵다(막10:24).

폭력으로 재물을 얻고 폭력을 옷처럼 입고 다닌다.

물이 흘러넘치는 강처럼 그들은 가지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산, 명예, 권세를 모은다(삼국지).

7절: 건강하고 얼굴에 윤기가 넘치고 은행에 돈이 많고 못하는 것이 없다. 원대로 산다.

8-9절: 땅에서 거만하여 못하는 말이 없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비방한다.

10절: 그런데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보다 더 무지한 채 오히려 그들에게 연합한다.

물을 다 짜듯이 끝까지 남은 쾌락을 추구하려 한다.

그래서 저들은 죄를 짓고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들이 짜내는 쾌락의 물을 마시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교회들은 어떤가? 세상의 생각들이 지배하지는 않는가? ★★★ 내 백성이 지식...

11절: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아시느냐, 지식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조롱한다.

12-16절: 아삽의 잘못된 결론

12절: 그들은 세상에서 형통한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13절: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헛되다.

14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며 예배하는데 왜 나는 재앙을 당하며 징계를 당하는가?

그가 읊기를 주의 깊게 읽었더라면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

사탄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해야 한다고 유혹한다(눅1-2).

아삽이라는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 거의 이런 철학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다.

#### 4. 예배드리는 사람: 영원의 큰 그림을 봄(15-22)

15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고 자기의 직무에서 벗어나기 전에 그는 결과를 예측해 보았다. 세 사람의 악장 중의 하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다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가르치고 노래한 모든 것이 허사임을 보여 준다.

16절: 이 모든 문제를 알기 위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아팠다.

17절: 그래서 그는 성소로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예배와 목상을 통해서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바른 시각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었다.

예배를 통해서 그는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고 자기 앞의 최종 목적지를 보게 되었다. 영원의 시각 즉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은 진짜 그림이 아니라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다가온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통해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 예배의 중요성 ★★★

18-19절: 바르게 눈을 뜨고서야 비로소 악인들의 실제 위치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

20절: 그들의 번영과 행복은 모두 잠잘 때의 꿈과 같이 덧없이 지나감을 확신하게 되었다.

요일2:15-17

눅12:16-21

아삽은 이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적인 균형을 되찾았다. ★★★

이들은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주님께서서는 그런 우상들을 멸시하신다.

21절: 아삽의 후회의 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양심에 찔림을 받음

22절: 그래서 자신을 짐승같이 부끄럽게 여김.

영원의 관점을 갖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 창조와 구속과 부활과 천국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짐승과 같다.

#### 5.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함(23-28)

아삽의 말 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도다”에서 그는 무엇인 선한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좋은(선한) 삶은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인가? ★★★

4-12절의 악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23-28절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 ★★★

23절: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주께서 네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더 이상 선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은 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악인들을 내던지신다(18절). ★★★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주둥이가 좁은 병, 땅콩, 악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24절: 의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권고를 받으나 악인들은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결국 멸망하고 만다. 의인들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나 악인들은 파멸에 이른다(19, 27절).

악인들은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의인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25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최대의 기쁨이고 땅에서는 그들의 최대의 소망이다.

그는 예배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

26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영원토록 뭉이다. 믿지 않는 부자들은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분의 복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죽자마자 영광과 혼이 하나님께로 가며 몸은 그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이다. ★★★

27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번영과 부귀만을 찾는 것은 음행하는 것과 같다.

28절: 이제 예배가 끝나자 아삽은 다시 믿음의 기초 위에 확고하게 서서 성소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경험을 말하였다(28절). 악인들은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

#### 결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원을 바라보고 살자.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와 공예배가 중요하다. 롬8:35-39 ★★★